

미국 중·서부지역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장 영 숙 한국수자원공사

I. 개요

□ 목 적

국외 선진도서관 견학방문을 통한 도서관 운영시스템 및 시설,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도서관 업무에 적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기 간 : 2003. 10. 2 ~ 10. 12(11일간)

II. 견학도서관

1) Heritage Park Regional Library

LA와 샌디에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교육 도시인 irvine은 주거환경 등 마스터플랜을 세워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성공한 계획도시로 1971년 재 탄생된 곳이다.

고용창출, 주거환경, 쇼핑, 교통, 교육, 녹지환경, 위락시설 등 7개 요소를 고려해 커뮤니티마다 가까이 학교와 공원, 쇼핑가를 배치했고, 벤치 하나를 놓을 때도 위치와 환경을 감안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계획을 거쳤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참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땅 소유주의 의지와 시 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철저한 계획 도시로서, 거리는 종이 한 장 없이 깨끗하며, 건물 벽은 낙서 한 건 없는 쾌적한 곳이다.

미국 여행 중 각 주거단지로 들어서는 첫 관문에는 언제나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2, 3층의 높고 넓은 건물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교양과 정서를 제공해 주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문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도서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의 산실이다.

그중 필자가 찾아 간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irvine의 Heritage Park Regional Library 이다.

Library 입구 광장 바닥을 irvine의 역사를 기록하여 등글게 설계한 것부터 인상이 깊다.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고 보존하는 문화의 보고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도서관 내부로 들어서자 서가와 서가 사이, 도서관 중앙과 창가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열람석 마다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레포트를 작성하며 정보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펍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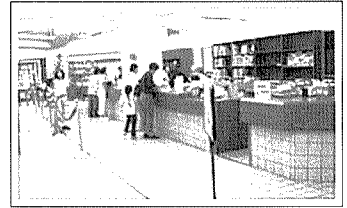
또한 그리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과는 달리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안내 카운터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각 Room(아동실·참고실·비도서실 등)으로 나누어 각 Room 입구에 안내카운터를 두고 대출 및 반납처리를 하는 것과 달리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업무는 한 곳(Library 출입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카운터에서는 순수한 참고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도서관에 참고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다.

Library 주 입구에서 왼쪽에 어린이용 도서가 배치되어 있고, 아동 자료를 담당하는 안내 카운터와 상담 사서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다. 마치 동화 책 속의 한 부분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앉거나 누워서 뒹굴면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다. Library 입구의 오른쪽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안내 카운터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대출·반납업무와 도서관 회원카드 작성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안내 카운터 맞은 편에는 2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넓은 카운터가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PC 및 일반 서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카운터가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 한다.

잡지서가 한가운데 놓여 있는 8대의 컴퓨터에서는 이곳 irvine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 한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검색엔진에 접속하여 e-mail을 체크하고 한국소식을 접하고 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이용을 위해 컴퓨터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다.

미국 도서관에서 눈에 띄는 코너는 "Book Sale" 코너이다. 이는 도서관 자료를 자산 취급하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낡은 자료에 대해서는 1\$ 또는 10¢ 등 저렴한 가격에 책을 팔고 있다.



〈중앙 안내석〉

○ 대출기간

- ↳ 책, 오디오자료 : 3주
- ↳ 베스트셀러와 잡지, DVD, 교양비디오 : 1주
- ↳ Non-Fiction 비디오 : 3주
- ↳ CD, 오디오 책 : 3주
- ↳ 대여 베스트셀러 : 1주간

2) Lawrence Public Library

캔사스주에 위치한 로렌스는 캔사스 주립 대학의 약 14,000여 명의 학생들과 인디안 대학의 1,100명의 학생을 포함한 약 32,858 명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교육 도시이다.

캔사스 주립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연구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Lawrence Public Library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진 Lawrence Public Library의 첫 인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또한 입구에 비치된 많은 행사 안내 팸플릿에서 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구 왼쪽에 위치한 어린이 열람실은 어린이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는 열람실답게 동심을 유발하게 꾸며져 있으며, 많은 교구들이 놓여 있다.

지하에 위치한 컴퓨터실은 이용자로 꽉 차 있으며, 정리 사서들은 각자의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이 조용하면서도 활기차 있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도서관·연구도서관·전문도서관 등 관중을 떠나 사서직의 기반 강화 및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우리 사서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서비스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끔은 규정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의 일들이 움직여 질 때가 있다. 그럴 때일 수록 이용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측면에서 서가 및 열람석 배열 등 작은 일부터 신경 쓰고 처리한다면, 우리의 도서관도 선진국대열에 들어 설 수 있을 것이다.

□ 장서현황 >>>

종 류	장 서 량	종 류	장 서 량
도 서	200,000권	Newspapers	20종
음악 CD	3,500종	Lawrence Journal	1,854건
비 디 오	9,500종	Microfilm	1,854건
잡 지	40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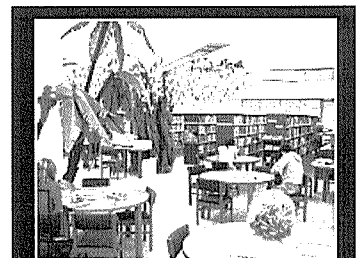
□ 분류법 : Dewey 십진분류법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9시 ~ 오후9시
- 토요일 : 오전9시 ~ 오후6시
- 일요일 : 오후2시 ~ 오후6시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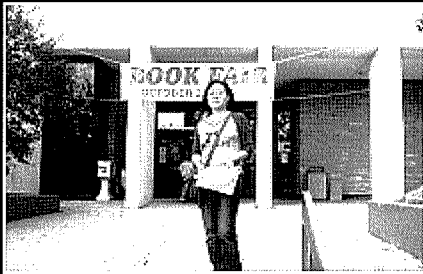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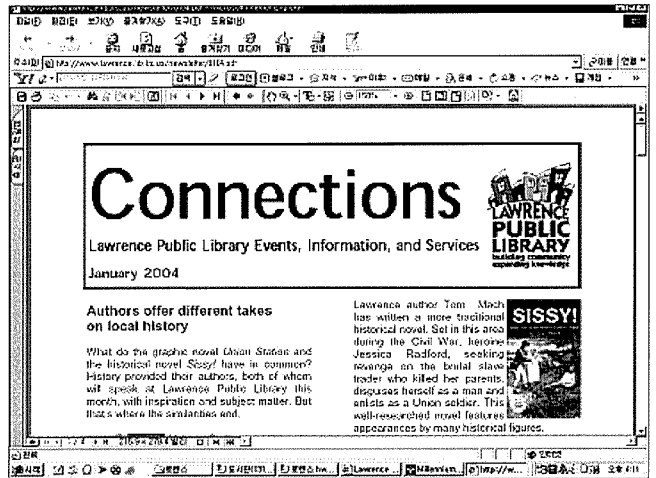
- Library Newsletter 발간 : 매달 - 도서관의 이벤트, 주요정보, 서비스
- 신착자료안내 : 월 2회
- 분야별 추천도서 코너 운영 (청소년, 어린이, 사회과학 등)
- 이동도서관 운영 (월, 화, 수)



〈도서관 내부〉

○ 각종 행사

- Exhibits / Displays
- Family Programs
- Children Programs : Story Theater, Storytime, Toddler Storytime, Books and Babies, Youth Writing Contest
- Young Adults
- Read Across Lawrence
- Genealogy and local / kansas history in Osma Rom
-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참고서비스
- Story hours,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도서관 외부〉



〈도서관 내부〉

III. 견학을 마치고

미국이라는 넓은 나라를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필자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크고 넓은 웅장한 Library보다도 작고 아담한 공공도서관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문화공간, 주거단지의 초입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Library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주민들이 지적인 사람들로 거듭나는 곳, 그래서 필자는 그 작은 도서관들이 항상 궁금했다.

현재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전문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하면 좀더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정보센터로

키워 갈 수 있을 지를 고민하던 중 이번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크고 멀게만 느껴지던 정보서비스가 아주 가깝게 다가섰다.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보서비스의 첫 번째 사항이라 생각한다.

당장 올해부터 "Book Sale" 코너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 이 용자와 한층 더 친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